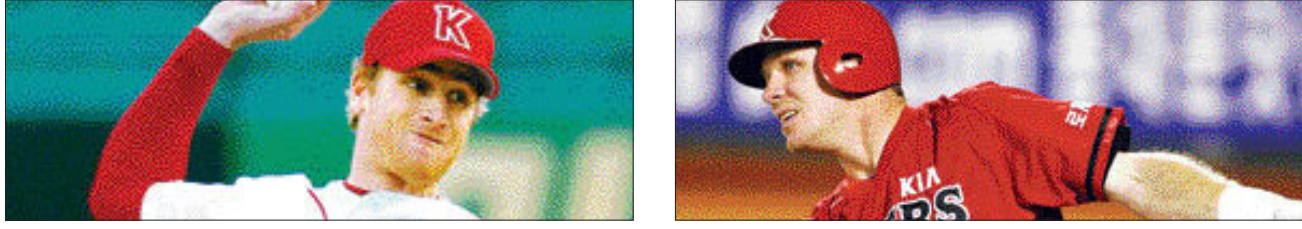


■ 프로야구 용병들 어떻게 되나?



KIA “그레이 남고, 스캇 가라”

삼성·두산, 투수 2명과 각각 재계약

롯데 호세 제외한 타자들은 불투명

2006년을 마친 프로야구 각 구단이 전력 정비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 해 농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외국인 선수 선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는 시즌을 마감과 동시에 고국으로 떠났다. 다만 9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제2회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를 준비 중인 한국 챔피언 삼성라이온즈의 두 용병 투수 팀 하리칼라와 제이미 브라운만 남아 있다.

삼성은 두 외국인 투수와 내년에도 재계약한다는 방침이다. 브라운은 시즌 초반 불안한 구구력 탓에 퇴출론에 시달렸지만 한국 야구에 적응을 마친 뒤 후반기에는 예시로 활약했다.

빠른 투구 템포로 공략하기 힘든 투수로 정평이 나있는 하리칼라는 까다로운 성격 탓에 한 때 재계약 포기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그만큼 투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계속 남게 됐다.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한화는 제이 데이비스 재계약을 놓고 고민 중이다. 루 클리버는 포스트시즌에서 ‘용병 잡는 용병’으로 맹활약했지만 정규 시즌에서 팀 기여도가 미미해 퇴출 가능성이 높은 반면 마흔을 바라보는 데이비스는 노쇠했지만 공격력은 통한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저울질 할 것으로 관측된다.

KIA는 세스 그레이시어(사진 왼쪽)를 계속 ‘호랑이 예이스’

로 잡고, 시즌 도중 합류해 부진한 성적을 보였던 스캇(사진 오른쪽)과는 재계약을 포기할 방침이다.

대신 조찬관 KIA 스카웃 과정이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 장타력을 갖춘 외야수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김재박 감독과 김성근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영입한 LG와 SK는 용병 영입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근 SK 감독은 6일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프로야구 트라이아웃 캠프에서 나올 재일동포 선수들을 유심히 관찰할 예정이다.

용병 쿼터와는 상관없는 동포 선수들 중 기량이 검증된 선수를 찾아보겠다는 뜻이다.

올해 뛰었던 마무리 투수 카브레라를 일단 김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재계약이 가능하고 세라노는 퇴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바디 카라이어, 라이언 베로커 등 두 외국인 투수를 기용했던 LG는 선발 및 볼펜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카라이어는 재계약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으나 종합적인 판단은 김재박 감독에게 맡길 참이다.

롯데는 ‘검은 갈매기’ 켈릭스 호세와 재계약 방침을 굳혔다.

현대는 후임 사령탑이 선임돼야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되었지만 장타력이 떨어지는 래리 서튼은 내보내더라도 기량과 식심에서 이미 ‘한국형 용병’으로 자리 잡은 마이클 켈러웨이는 계속 데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은 다니엘 리오스, 맷 랜들 등 두 외국인 투수와 재계약할 계획이 확실시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이상화 1년 더 뽀다

군입대 연기 결정

올해 말 군입대가 예고됐던 KIA 투수 이상화(26)가 우여곡절 끝에 호랑이 유니폼을 1년 더 입게 됐다.

KIA 구단 관계자는 2일 “나이 제한에 걸려 군입대를 결정했던 이상화가 한 시즌을 더 뛰게 됐다”면서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이 5학기제로 만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 시즌 선발과 중간, 마무리를 오가며 소급같은 역할을 해냈던 이상화의 가세로 내년 시즌 KIA 마운드도 막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상화는 당초 대학원 진학시 만 26세가 지 연기가 가능한 군 연령 제한에 걸려 내년 군입대가 기정 사실화 됐었다.

서정환 KIA 감독은 올 시즌 내내 이상화가 1년 더 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구단 프런트에 지시했지만, 군 문제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KIA 운영팀 오현표 팀장도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어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었다.

이상화가 재학중인 대학원이 5학기제로 만 27세까지 군 연기가 가능했던 것.

KIA는 이상화의 군입대 직전,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고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1년 더 연기가 가능하다는 희신을 받아들였다.

KIA에서 이처럼 이상화에 목을 건 이유는 그의 팀내 공헌도 때문.

이상화는 올 정규시즌에서 5승 6패 방어율 3.87로 표면적인 성적은 ‘중간’ 정도다. 하지만 내용면에선 누구보다 알차다.

45경기에 출전, 121이닝을 던진 이상화는 선발과 중간, 마무리 등을 가리지 않고 공백이 있는 곳마다 속칭 ‘뽀방’으로 나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이상화는 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공과 좌우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일품이다.

이상화는 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공과 좌우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일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한 한화 류현진이 2일 프리자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두개의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한뉴스

‘괴물’ MVP·신인왕 독식

류현진 국내 프로야구 사상 첫 동시 석권

‘괴물 투기’ 류현진(19·한화)이 한국 프로야구 출범(1982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왕을 석권했다.

류현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6 프로야구 정규시즌 MVP 투표에서 전체 92표 중 47표를 획득, 35표를 얻은 ‘토종 거포’ 이대호(24·롯데)와 10표의 ‘특급 소방수’ 오승환(24·삼성)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서 2천만원 상당의 순금 트로피를 받았다.

류현진은 또 생애 한 번 뿐인 신인왕 투표에서도 82표를 얻어 8표에 그친 ‘황금팔’ 한기주(KIA)를 압도적인 표 차로 따돌리고 최우수신인 타이틀을 차지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MVP와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는 류현진이 사상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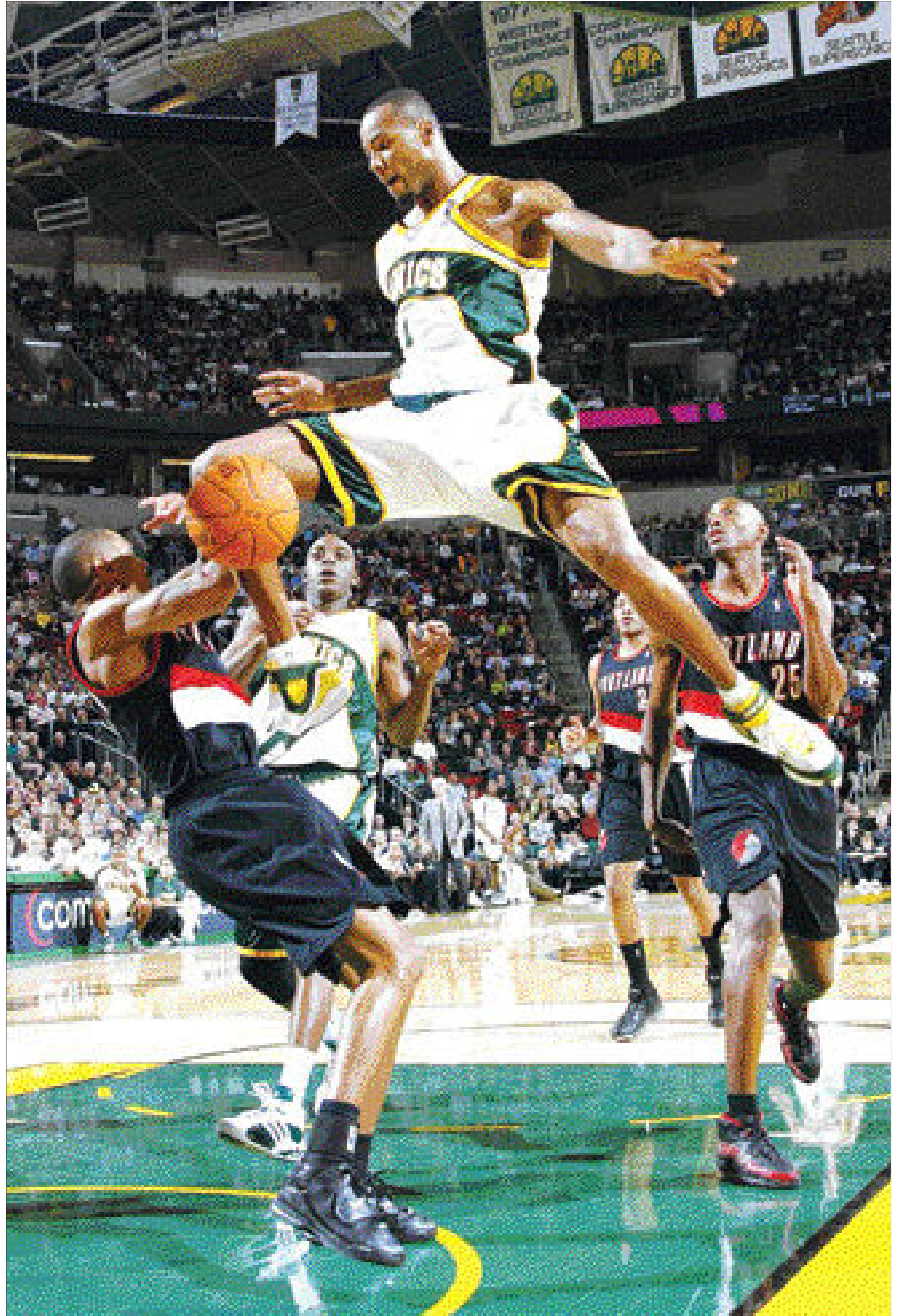
류현진은 올해 프로에 입문해 다승(18승)과 방어율(2.23), 탈삼진(204개) 각 1위에 오르며 선동열 삼성 감독 이후 15년 만에 투수 트리플 크라운 위업을 이뤘다. ‘국보급 투

수’ 명성을 얻은 선동열 감독은 해태(현 KIA) 시절이던 지난 1986년과 1989~91년 등 혼자 4차례 투수 3관왕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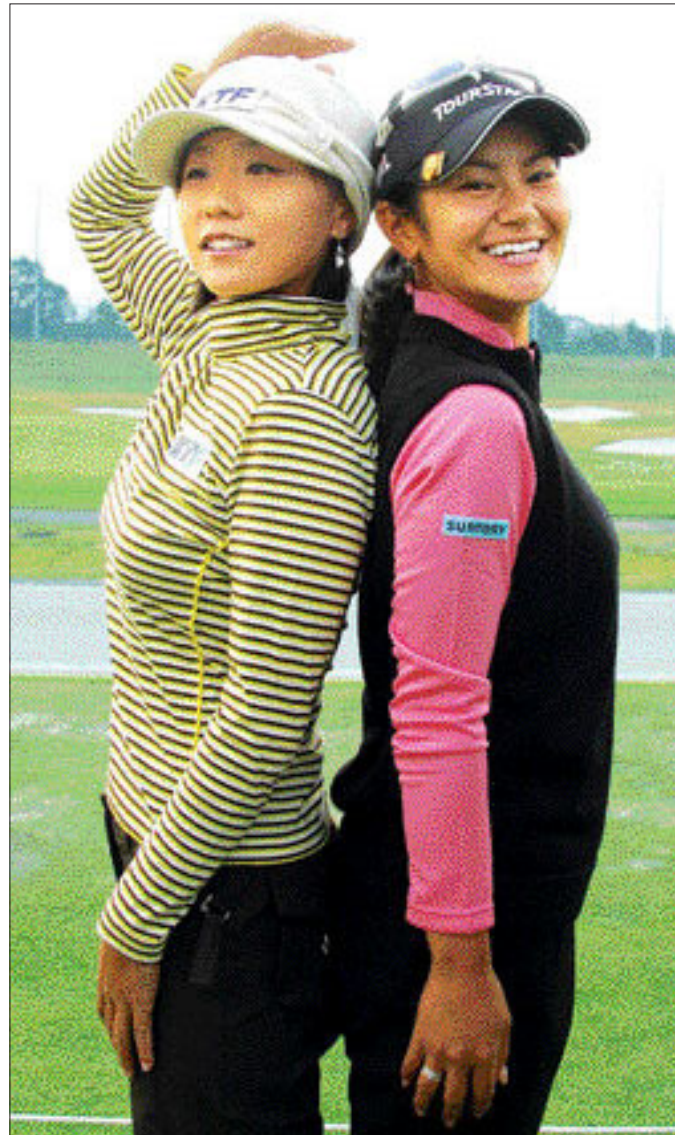
또 김진우(KIA)가 2002년 세웠던 한 시즌 신인 최다 탈삼진기록(177개)을 갈아 치우고 신인 최다승 부문에서도 김건우(MBC·1986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프로야구 신인 기록을 새롭게 썼다.

류현진은 “올해 이렇게 많은 상을 받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2월 도하 아시아게임 국가대표로, 그리고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투·타 부문별 시상에서는 투수 3관왕 류현진과 타격 4관왕 이대호 외에 국내 출드 부문 신기록(32홀드)을 세운 권오준(삼성)과 안타왕(154개) 이용규(KIA), 승률왕(0.778) 전준호(현대), 도투왕(51개) 이종욱(두산), 득점왕(89개) 박한이(삼성)가 각각 타이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일 열린 2006~2007 미국프로농구(NBA) 시애틀 슈퍼 소닉스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경기에서 시애틀의 포워드 리쉬워드 루이스(위)가 슛을 시도하던 중 상대 주안 덕슨의 파울에 막혀 공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날 경기는 포틀랜드가 110-106으로 승리. /연한뉴스



‘거포’ 김연경·한유미 “7연패 수모 갚겠다”

내일 세계여자배구선수권-한국, 日과 맞대결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다’

한국 여자배구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06 세계선수권에서 오는 4일 맞붙는 홈팀 일본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2월 열린 카타르 도하아시아게임의 전조전 성격을 띠고 있어 불꽃같은 승부가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8월 그랑프리 세계대회에서 두차례 완패하는 등 2004 아테네올림픽 예선에서 승리한 뒤 ‘속적’ 일본에 7연패 수모를 당하고 있다.

김명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거포’ 김연경(흥국생명)과 한유미(현대건설)가 가세한만큼 멋지게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일본은 대회 첫날 대만에 1-3으로 역전패해 예선 A조에서 1위 자리에 오르는데 비상이 걸려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나기모토 쇼이치 감독이 지휘하는 일본은 탄력을 앞세운 빠른 공격과 톱니바퀴처럼 총출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한다.

자나 해 이탈리아리그에서도 뛰었던 ‘주포’ 다카하시 미유키는 단신(170cm)이지만 스파이크와 서브가 매섭고 수비도 일품이다.

또 중국에서 높이 뛰기 선수로 활약하다 일본으로 귀환한 오야마 슈카(182cm)도 높은 타점에서 때리는 스파이크가 위협적이다. 한국대표팀은 평균 신장이 역대 최고인 181cm로 일본(176cm)보다 5cm 크고 김연경, 한유미, 황연주(흥국생명), 배유나(한일전산여고) 등 공격수들이 막강해 화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LPGA 한·일 ‘팡퐁 키재기’ 2일 일본 미에현 시마의 가시고지마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 프로암 경기에서 출전한 김미현(왼쪽)과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서로의 키를 재고 있다.